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3화		
<div>3. 불씨</div> <p>조병갑이 다시 부임한다는 소식은 그의 횡포를 겪은 고부군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의 전횡에 항의했다가 곤장을 맞고 숨을 거둔 전창혁의 아들이자 동학 접주 전봉준은 동학교도뿐 아니라 농민들을 결집시켰고 그들은 죽창을 들었다.</p> <p>“우리가 피땀 흘려 지은 곡식이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고 저 악랄한 지주나 관료 손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의 대소 신료들은 자기 잇속 채우기에만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병갑마저 다시 부임해와 어제의 행패를 오늘 또 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부디 저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 대열에 앞장섭시다. 자, 날이 밝기 전에 곧바로 고부 관아로 쳐들어갑시다.”</p> <p>전봉준의 말에 어마어마한 수의 농민들이 말목장터에서 봉기하여 관아로 몰려들자 조병갑은 겁을 먹고 도망갔다.</p> <p>고부의 상황을 듣자마자 밤길을 달려 돌아온 주학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부모님이 무사하신 걸 확인한 후에는 이런 혼란에 과거가 미루어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뿐이었다. 인혁의 도움까지 받았는데 시험을 못 본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주학은 아버지 송참봉에게 걱정스런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p> <p>“오월 보름날 예정인 과거가 미뤄지지는 않을까요?”</p> <p>“글쎄다. 조정에서 어찌 결정을 하실지...”</p> <p>송참봉의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웠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주학은 결심한 듯 말했다.</p> <p>“저는 일단 길을 떠날까 합니다. 한양에 숙소를 정하고 준비 하겠습니다.”</p> <p>“동학도 놈들이 마을에 온통 진을 치고 있는데 괜찮겠느냐?”</p> <p>“그들이 절 어찌하겠습니까. 조병갑을 물리치러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p> <p>말은 침착하게 했지만 주학의 머릿속은 불안과 분노로 소용돌이치는 중이었다. 아무리 조병갑에게 시달렸어도 난을 일으키는 것은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학의 생각이었다. 주상전하께서 임명한 관료가 아닌가. 청원과 읍소로 해결해야지 폭도가 되어 관아로 쳐들어가는 것은 반역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혁이 동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주학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 부모님이 아시면 인혁이 아니라 주명을 닦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p> <p>“그래, 너는 난리에 신경 쓰지 말고 시험에 집중 하거라. 우리 집안의 흥망이 너한테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p> <p>“네, 알고 있습니다.”</p> <p>아버지의 말대로 주학은 부모님의 기대를 온전히 받고 있는 몸이었다.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출세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과거에 급제를 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때문에 주학은 이번 과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바쳤다.</p> <p>***</p> <p>인혁과 주명, 업동도 주학의 뒤를 이어 따라왔다. 인혁이 혹시라도 위험할까 싶어 주명의 동행을 말렸지만 그녀는 애원했다.</p> <p>“부모님께서 무사하신 걸 제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p>			

어수선한 분위기의 마을에서 두문불출하던 송참봉 내외는 딸과 사위를 반겼다. 두 사람과 같이 온 쌀과 돈을 더 반겼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명은 부모님이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넉넉지 않은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지낸 것 같아 더욱 그랬다. 비록 오라비만 편애하고 오라비의 장래를 위해 자신을 재물에 넘긴 부모였지만 서운하던 마음은 잊은 지 오래였다. 지금은 오히려 인혁과 혼인시켜준 것이 고맙다는 게 주명의 진심이었다.

인혁과 주명은 주학이 과거 시험을 위해 떠나기로 하자 당분간 고부에 머물기로 했다. 주명은 시집가기 전에 쓰던 자신의 방이 전혀 그림지 않았었다는 것에 놀랐다. 부모님은 항상 순종만 강요했고 외출도 거의 못한 채 지냈던 고향에서 좋았던 기억은 업동과 함께 놀던 시절뿐이었다. 업동은 바깥 세상 소식도 전해주고 부모님 몰래 재미있는 책을 구해다 주기도 했다. 업동이 물었다.

“아씨, 집에 오시니 좋으세요?”

“너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좀 그래요.”

“나도 그래. 편한 거 같기도 한데 이젠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김씨 덕 사람 다 되셨네요. 헤헤.”

“그런가?”

김씨 덕 사람이란 말에 주명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주명에게는 봉서마을이 아니라 인혁이 집이었다. 그의 마음 안에서 살고 싶었다. 주명의 미소는 언젠가는 그리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담고 있었다. 업동에게 그런 주명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업동은 봉서마을에 남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오고 싶기도 했다. 잊고 지내려 했던 감정이 주학과 마주하자 되살아나 혼란스러워 갈등했다. 그래도 주명이 가는 곳이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업동의 생각이었다. 몸종이어서가 아니라 주명과 업동은 서로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였다. 주명 역시 혼인할 때 업동을 꼭 데려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청했다. 낯선 봉서마을에서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핑계를 댔다. 처음이자 마지막 딸의 부탁에 송참봉 내외도 입 하나 덜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었다. 물론 주명이 업동을 꼭 데려가려 한 건 외로움을 두려워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업동을 오라비 주학에게서 떼어놓아야 했다.

“서방님께서 혼자 나가셔서 걱정이구나. 동네 지리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어디 계신지 찾아볼까요?”

“바깥이 위험할 거 같아 너 혼자 보내기도 꺼림칙하구나.”

“위험하긴요. 군수 있을 때 보담 한결 낫겠죠.”

주명도 조병감의 횡포를 알고는 있었지만 군수에게 존대도 쓰지 않는 업동의 대담함에 새삼 놀랐다. 물론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처음이기도 했다. 주명은 업동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이 아이는 세상 돌아가는 걸 나만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는 민란이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다행이라기보다 관아에서 저지른 것들이 워낙 심했잖아요. 저 같은 것도 알 정도로요. 참봉나리께서도 언제 꼬투리가 잡혀 끌려갈지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러긴 했지.”

“백성들을 보살피 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살아요. 백성들이 없으면 결국 나라도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 업동아. 그런 건 어디서 알았니?”

“책에서도 보고 듣기도 들었고요.”

“누구한테 들어?”

“여기 살 때 아랫마을 서당 훈장님한테요.”

“훈장님?”

업동은 흠칫했다. 하마터면 고부에서 그 훈장님께 글을 배웠다는 사실을 말할 뻔 한 것이다.

“아씨께 책 구해다 드릴 때 알게 된 분이어요. 책 빌리면서 이런 저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업동은 차마 말하지 못한 얘기를 속으로 삼키며 주명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보국안민(保國安民)’ 깃발이 걸린 고부관아는 지난 며칠간의 아수라장에서 벗어나 다시 정리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들은 무기창고를 접수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수탈의 도구였던 만석보도 부숴버렸다. 혹시라도 양반과 아전들에게 복수하며 피바람이 불까 떨던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동학군은 장두 전봉준의 지휘 하에 마을을 안정시켜 갔다.

인혁은 전봉준이 궁금했다. 동학교도인 지인들에게 고부접주 전봉준에 대해서 들은 바가 많았다. 작년에 우연히 봤던,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 매달 것,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욕스러운 아전을 쳐서 징벌할 것, 전주 감영을 함락시키고 곧바로 한양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발통문의 내용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고부군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보니 수긍할 수 있었다. 처남에게는 학문으로서 동학을 공부한 것뿐이라고 했어도 사실 인혁은 그 이상의 관심이 있었다. 주학이 염려한 대로였다. 인혁은 어쩌면 처가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전봉준과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고부에 왔는지도 몰랐다. 그는 고부관아로 전봉준을 찾아갔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바쁜 가운데도 전봉준은 기꺼이 인혁과 대화했다.

“정말 한양으로 올라가실 겁니까?”

인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전봉준은 껄껄 웃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젊은 선비는 겸손하면서도 명석해 보였다. 동학의 교리는 접주인 전봉준 자신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많은 동학교도들은 팍팍한 현실에 살기 바빠 책을 읽을 수 없는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귀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동학의 사상에 이끌렸다. 양반만이 대접받고 평민이나 상인, 백정과 노비는 멸시와 수탈의 대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동학에 가입한 것이었다.

“못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못 하실 건 없지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목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목적이라면요?”

“임금께 백성들의 현실을 고하고 탐관오리들을 벌해 달라 청하려 한다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국안민 아니겠습니까.”

“탐관오리들을 백성들이 직접 벌하면 안 되지요?”

“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임금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조정이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

인혁은 차마 대꾸를 못했다. 불과 얼마 전에 주학과 부패한 현실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던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오히려 가진 것 없는 백성들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도망간 임금 대신 한양을 지킨 건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남도부터 경상, 충청, 경기, 저 위 황해도까지 전국에 우리 동학교도들이 수만 명입니다. 동학교도가 아니어도 뜻을 같이 할 농민, 평민들도 많습니다. 그 수만 명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문 밖에 엮드려 통촉 하시옵소서 하며 읍소하는 유생들과는 다르지요.”

전봉준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였다.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횃불과 죽창이 있습니다. 조병갑이 도망간 것처럼 탐관오리들을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소중한 다른 이들을 지킬 힘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전봉준의 열변에 인혁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제까지 인혁은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소중히

대하라는 교리에만 동의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수양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고 이론일 뿐이었다. 전봉준은 인혁에게 현실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 주었다. 책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사상이 인혁의 가슴에 불씨를 피우고 있었다.

**

주학은 주명의 방이 있는 별채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과거를 치르러 떠나기 전에 업동을 한 번 보고 싶었다. 허나 작은 사립문만 열고 들어서면 될 일인데 발이 문턱을 넘어가지 않았다. 동생과의 작별인사를 핑계로 들어갈 수도 있으나 업동과 따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며 오갈 뿐이었다.

“형님.”

인혁이 부르는 소리였다. 뒤돌아보니 인혁이 외출에서 방금 돌아온 듯 했다.

“어, 이제 들어오나.”

“예, 형님 산책중이십니까?”

“어? 어.. 잠이 안 와서...”

“시험이 많이 부담되지 않지요. 혼란한 가운데 집을 비우시는 것도 걱정되고요.”

“그렇지.”

“그래도 제가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래. 고맙네. 자네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네. 들어가 쉬게나.”

“네. 형님도 편히 주무십시오.”

허리 숙여 인사한 인혁이 별채로 향했다. 그제야 주학은 아차 싶었다. 인혁과 같이 별채로 갈 걸 하는 생각이 뒤늦게 떠올라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다. 주학은 짙은 눈썹을 찌푸려 인상을 쓰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들었다.

**

인혁은 주학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전봉준과의 만남의 여운은 길었다. 인혁은 고부에서 지내는 동안 전봉준을 자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가 언제 전주로 떠날지 몰라 조급해졌다. 마음 같아서는 동학군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양반이라는 그의 태생이 그로 하여금 망설이게 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다. 이 밤, 인혁은 아마도 밤을 새며 고민을 할 것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방을 향하던 인혁은 어디선가 작게 들리는 외침에 고개를 들었다. 기합 소리 같기도 하고, 다급한 외침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별채 뒷마당에서 들려왔다. 인혁은 혹시 누군가의 침입인가 하는 불안함에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별채 건물 모퉁이를 돌아 뒷마당으로 뛰어든 인혁은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놀라 걸음을 멈추느라 휘청거렸다.

목검을 든 업동이 춤을 추고 있었다. 아니 춤이라기엔 몸놀림이 강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렇다고 무술이라 하기엔 유연하고 우아했다. 목검은 직접 깎아 만들었는지 엉성하고 불품없었지만 업동은 진지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검을 든 손을 휘둘렀다가 가슴 앞에서 모으고, 앞으로 경충 뛰었다가 한 바퀴 돌며 다시 검을 위에서 아래로 내질렀다. 가볍게 위로 치솟았다가 내려앉기도 했다. 뒷마당을 자유롭게 누비며 한 동작 한 동작 이어나가는 업동의 몸은 무척이나 날렵했다. 한껏 부릅 뜬 눈으로 정면을 노려보며 [합! 합!] 작은 기합을 뱉어내는 업동의 얼굴에서는 철없이 까불던 몸종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달빛이 그런 그녀의 자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